

전라청년미술상 수상작가전 개최

제13회 수상자 이선주 옷칠공예작가 선정... 5~14일 전주 기린미술관서 작품 전시

제13회 전라청년미술상 수상자에 옷칠공예작가 이선주(44)씨가 선정됐다.



이선주 작가

전라청년미술상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호철)는 제13회 전라청년미술상 수상작가를 발표했다. 전라청년미술상은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유망한 청년작가를 선정해 미술상을 수여한다. 교육자이자 화가였던 고 김치현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지난 2011년에 발족하여 도내 청년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치현청년미술상으로 시상하다 2019년부터는 상의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넓히기 위해 전라청년미술상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상을 이어가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추천과 토론을 거쳐 민정일치로 작가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겐 예사문화연구원서에서 창작지원금과



나전모란청초문정반

개인전을 후원한다. 이번 전라청년미술상은 옷칠공예작가 이선주(44)씨가 열세번째 수상자가 됐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를 졸업한 이 작가는 일본 교토예술대학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국내·외 10차례의 개인전과 22여차례 단체전 참여 뿐 아니라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등 1999년부터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유학시절 옛 기법을 연구 복원한 결과는 기법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시도를 해왔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담은 다양한 색과 빛

깔의 옷칠 작품을 오는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열흘간 선보일 예정이다. 가구와 소품, 액자 등의 옷칠로 제작된 작품이 전시되는 가운데 시대별 대표작을 재현한 작품은 그 시대의 옷칠공예의 정수를 엿볼 수 있으며, 현대화 한 벽화 시리즈의 '항아리'는 옷칠의 오묘한 빛의 매력을 한껏 품고 있는 작품으로 작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매개체로서 작가의 섬세한 손길로 곱게 정돈된 옷칠은 작품의 격을 보여준다. 아버지(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옷칠장 이의식)의 뒤를 이어 지속적으로 옷칠에 대해 연구하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선주 작가는 옷칠이 지니는 가치와 가능성을 더 이끌어 내어 보다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기린미술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공간 기린미술관(063-284-088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 3층)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유재복 작가, '날 수 없는 새' 발간

유재복 작가가 단편동화집인 '날 수 없는 새'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다섯 편의 짧은 동화가 실려 있다.



작가에 따르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일상을 꼬집는 '날 수 없는 새', 빈 회전목마를 돌리며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손자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회전목마, 어려워진 살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돈 벌러 떠난 엄마를 기다리며 깨끗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두 남매의 이야기 '지리산 메아리', 첫눈 오는 날 학교까지 따라온 애견 복실이의 실종으로 괴로워하는 심정을 그린 '첫눈과 복실이', 텃새인 아기 참새 포름이가 철새인 제비를 따라 따듯한 남쪽 지방으로 무모한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아기 참새 포름이' 등이 있다.

특히 이 중 타이틀 제목인 '날 수 없는 새'는 아직도 부모의 자녀 교육 방식을 꼬집으며 아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 준다.

유재복 작가는 1959년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교육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과 박사 과정을 졸업하고,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꿈꾸는 허수아비'를 시작으로 월간 아동문학 신인상에 동화 '춤추는 개나리', 월간 아동문에 문학상에 동시 '꿈꾸는 대나무'가 당선됐다.

그는 한국문인협회, 한국아동문학회, 아동문예작가회, 국어국문학회 회원이기도 하다.

유재복 작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대학 국어, 글쓰기의 기초, 언어이론, 국어 문법론, 중세 국어 등의 과목을 10년 간 강론했다.

또한 교육부 국어과 교과용 도서 심의위원,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 과정 위원, 전국방과후학교담당자 협의회장, 전북교육청 장학사·장학관을 지냈고, 전주효림초등학교 교장, 익산공동초등학교 교장을 거쳐, 현재는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보호관으로 재직 중이다. /정은성 기자

원도심 활성화 위한 '전주 쇼핑 페스타'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전주시,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운영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최근 전주시와 공동으로 '2023 전주 쇼핑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만의 차별화 된 쇼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전주 원도심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사다.

지난달 30일 재단에 따르면 전주시 중앙동, 고사동 등지는 유명 브랜드, 노포, 맛집이 즐비해 있는 전북을 대표하는 쇼핑 성지로 20~30대 MZ세대는 물론,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렇게 매력적인 쇼

핑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인구가 점차 줄고 있어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 하고, 외부 관광객들에게 전주만의 쇼핑관광에 대한 매력을 보여주고자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추진했다.

올해는 나이기 고사점, 교보문고 등 브랜드업체와 토마토 고사점, 양전관, 온세미로공방 등 소규모 업체 58개가 참여했다.

행사기간 전주시 원도심 거리에 있는 업체별 홍보를 위한 라이브방송·온라인 송출과 결제 시 경품을 제공하거나 SNS·대중교통 이벤트

등 주요 고객층(10~30대) 타겟의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관광객, 주민 등이 참여하는 무대 공연 이벤트도 시간대별로 운영했다.

특히 손님 방문으로 자리를 비우기 힘든 업체 관계자들을 고려해 추진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은 새로운 시도이긴 했으나, 향후 사진 홍보를 해야 하는 등의 과제도 남겼다.

또한 외부에서 진행되는 축제나 보니 날씨, 교통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어 행사 주관기관은 물론 운영 및 참여업체 등을 당혹케 하기도 했다.

재단 관계자는 "쇼핑페스타가 올해 다소 아쉽게 마무리됐지만 현장에서 지적된 현안에 대해 관계자 및 업체·시민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전주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솜리에술마을 갯살살기 프로젝트

익산시, 금속 공방·전시장 '헤리티지'·휴식 대여공간 '리:스테이' 운영

익산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락문화재가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난 9월 공모에 당선된 금속 공방 '헤리티지'와 공간임대 '리:스테이'를 시작으로 구도심인 인화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솜리에술마을 갯살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갯살'은 '갯(GOD)'과 '인생'을 합한 말로, 특정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헤리티지(옛 건강관 자리)'는 원광대를 졸업하고 서울시 무형문화재 입사장 이수자로 활동하던 송은선 대표가 운영하는 금속공예 전시장·체험 공방이다. 송 대표는 금속 전통 공예를 통해 지역주민과 가까이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익산에 돌아와 정착하게 됐다.

'리:스테이(옛 서울양행 자리)'는 개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대여형 공유공간으로 박영준 대표가 운영한다. TV 인터넷 스트리밍(OTT) 서비스와 간단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유주방 등을 갖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박영준 대표는 구도심인 인화동을 젊은 세대들의 발견음이 향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익산시는 두 사람이 지역에서 인적 소통망을 만들고 익산을 대표하는 문화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자나 시민들과의 주기적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복 이후 한국인들의 생활사를 엿볼



개인 휴식 공간 제공하는 공간대여형 공유공간 '리:스테이'

수 있는 건축물이 집중분포된 익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특성을 반영, 독특한 분위기를 간직한 문화,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가 프로젝트들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헤리티지'의 금속공예 전시는 매주 수요일~토요일 오후 2~5시 상시로 운영되며 오는 12월부터는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리:스테이'는 오전 10시~오후 9시 시간별 예약제로 운영된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은 익산의 근현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이라며 "이번 솜리에술마을 갯살 살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세대를 아울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 되도록 명소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제4기 대학생 SNS 기자단 모집

국립전주박물관(관장직무대리 장진아)은 오는 26일까지 제4기 대학생 SNS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될 제4기 대학생 SNS 기자단은 취재 분야(글, 사진)와 영상 제작 분야 각 4명씩 총 8명으로, 전북 지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선발되는 기자단은 박물관의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한편, 전시 및 문화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취재한 후, 영상과 글을 SNS에 게재한다.

기자단 전원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비 지원, 활동증서 등을 받을 수 있고, 우수 기자에게는 국립전주박물관상도 수여할 예정

이다.

한편 국립전주박물관 제4기 대학생 SNS 기자단 지원 희망자는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접수하면 된다.

국립전주박물관 홍보 담당자는 "대학생 SNS 기자단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박물관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전북 지역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름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로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